제언

산업보건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 · 순천향대학교 교수
우 극 현

지난 5월 20일 첫 메르스 감염환자가 발생한 후 약 두 달 가까이 메르스 공포로 나라 전체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의료종사자의 메르스 감염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메르스 감염환자 186명 가운데 20%가 넘는 40여 명의 보건의료인이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홍콩독감이나 치쿤구니야열 등 신종전염병이 메르스 사태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앞에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또한 우리 학회의 정체성 및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9월 27일 제가 오랫동안 근무해 오고 있던 구미에서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건강영향조사단으로 활동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이 분야의 전문성과 조직적인 대응능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음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 후 관련법이 강화되고 6개 권역별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신설하여 사고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각종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가? 라는 질문에 여전히 그렇다고 답을 하기에 망설여지는 것은 어쩜일까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월호 사고로 다시 한 번 온 나라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엄청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마침내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는 등 또 한 번의 국가적 위기를 겪은 기억이 아

직도 생생합니다. 그 때마다 정부는 머리 숙여 사과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의료수준이 높아 세계각국으로부터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요즈음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후진국의 오명을 얻게되어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산업보건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과거를 돌아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산업보건의 궁극적인 목표인 "근로자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증진" 시키기 위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시대가 요청하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문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50주년을 기념하여 2013년 11월에 발간된 "산업보건 반세기"를 살펴보면서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산업보건은 협회를 중심으로 산업보건 기반형성기 및 구축기를 거쳐 크게 성장 발전해 왔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로자 건강검진은 지금까지 의료보험 재정으로 매년 이루어져 왔는데 보건복지부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효과도 별 차이가 없고 비용문제도 발생하여 2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 학회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건강검진의 주기에 관한 발제와 토론시간을 가졌는데 일부 토론자가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을 들으며,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표면화되기는 했지만 건강검진에 관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노력이 부족했음을 느꼈습니다. 비단 이 문제 뿐 아니라 교대근무, 감정노동, 장시간노동, 고령근로자 등 각종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보건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2만 5천불이 넘어서면 사회의 주된 이슈가 안전문제 보다도 보건문제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안전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세월호 문제 등을 통해 안전분야 전문가들이 하나로 뭉쳐 한 목소리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입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보건분야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 등 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유기적인 관계로 팀워크를 잘 발휘하여 보건분야의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나 여러 가지 긴급한 보건문제 현안들을 풀기 위한 공동노력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산업보건관리의 3대 요소인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agenda 별로 함께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정례모임, 공동연구 등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보건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중심이 되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각종 안전보건대책 시행으로 재해율은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OECD 국가 사고사망만인율이 선진국에 비해 2~4배 높은 수준으로 안전보건의 근본적 변화를 필요로 하는 시점입니다. ILO가 2001년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회사의 경영시스템에 포함시켜 능동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안을 제시하였지만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들은 아직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수동적인 안전보건관리업무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2010년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사업장들이 능동적으로 안전보건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실효가 없어 2015년 3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여 사업장실태 점검에 포함시켜 안전보건관리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감독보다는 지도로 이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며 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보건문화가 조성되게 하는 일이 우리도 함께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제입니다.

그동안 2003년부터 사업장이나 농작업 환경개선 및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참여형개선활동기법(PAOT)을 활용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운영해 온 한사람으로서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하는 참여형 기법들이 새로운 안전보건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국제산업안전보건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울선언을 채택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세계산업보건의 글로벌 하모니: 세계를 하나로" 라는 주제로 93개국으로부터 3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1차 국제산업보건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저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된 안전보건문화가 만들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